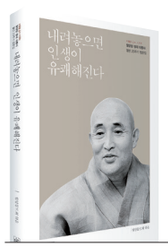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6~12/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7	언어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3	억울한 누명:김성철교수의 불교시 모음	김성철 시집	오타쿠	8	사회속의 불교는 불교속의 사회를	김성철	오타쿠
4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9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틱낫한 스님이 새로읽고 해설한 반야심경	틱낫한/송영희	싱긋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종원	맑은소리맑은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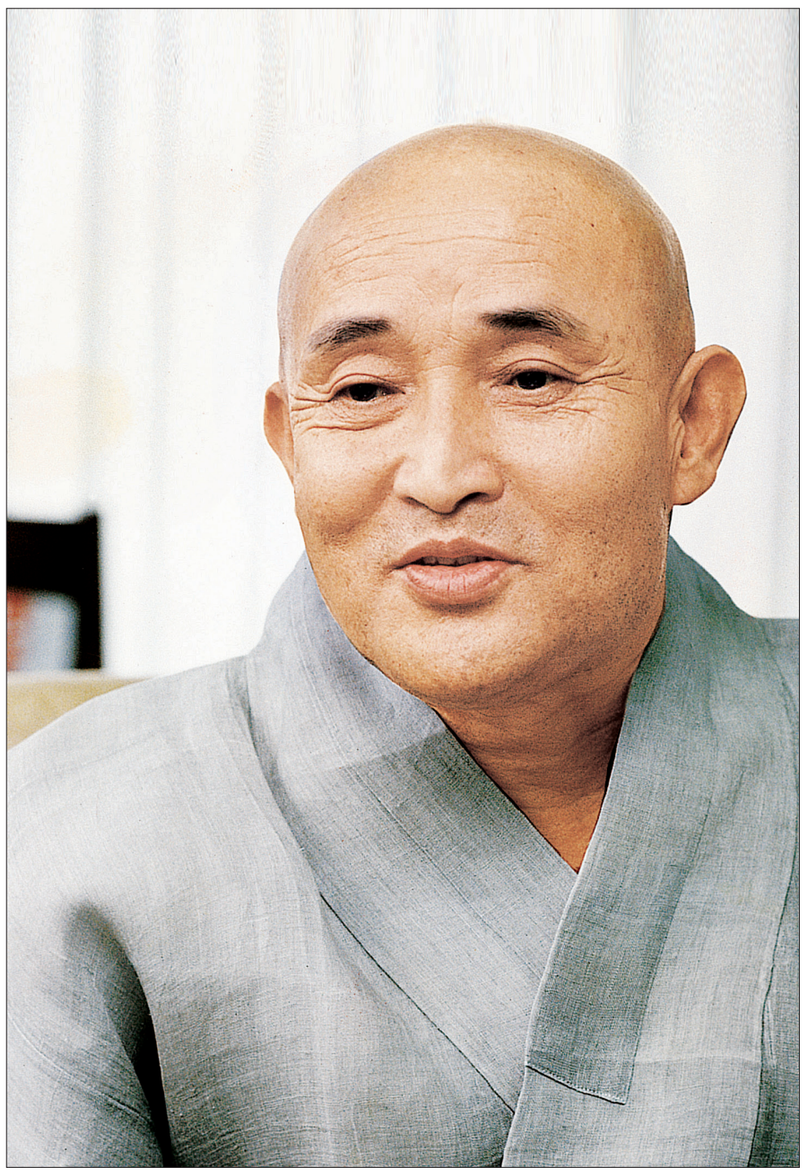
책세상

"내려놓으세요 인생이 오래도록 유쾌해집니다"



내려놓으면 인생이 유쾌해진다
월암문도회 엮음
도서출판 동국 펴냄
2만5000원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기 법문집
용주사 추모다례서 법문집 봉정해
5가지 주제로 핵심적 법문들 엮어
삶의 본질 꿰뚫는 법문들 울림 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월암당 정대 대종사는 혼란을 겪고 있던 조계종단을 화합으로 이끌었고, 굳은 신념과 추진력으로 산적했던 종단 현안들을 해결하며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정대 대종사는 누구보다 진솔하고 인간적이었고, 깊은 수행력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었던 선지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생전 대종사의 법문은 때론 인자한 스승의 덕담이면서도, 때론 서릿발 같은 경책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방향을 전하는 지남(指南)이었다.

월암문도회와 상월결사가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년을 맞아 생전 설법 가운데 핵심적인 26개를 추려 법문집 〈내려놓으면 인생이 유쾌해진다〉를 동국대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했다. 법문집은 12월 7일 용주사에서 봉행된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봉정됐다.

선별된 정대 대종사의 26개 법문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는 없다 △내 마음속 보물창고 △찰간(刹竿)을 꺾으라 △그저 인연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 △마음을 다해야 마음이 비워진다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누구나 법문을 통해 정대 대종사의 진면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법문 하나하나에 소탈하지만 깊이 있는 사유가 생생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대종사가 생전 역설했던 불교의 참된 진리와 수행자의 자세, 그리고 종교로서의 불교가 이 시대 중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냉철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기'란 무엇인가요? 결국 '환화공신(幻化空身)'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몸을 잘 먹이고 호강시켜 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연이 다 하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흩어지면 그 무엇을 자기라 할 것이며, 자기가 없어졌는데 또 그 무엇을 자기 것이라 할 것입니까? 모두 쓸데없고 허망합니다. 부질없는 집착을 괜히 무겁게 짊어지고 있지 말라. 방하착(放下着)하십시오. 탁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인생은 오래도록 유쾌할 것입니다."

세속화 흐름에 빠진 불교계의 세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교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정대 대종사의 올곧은 신념도 법문에서 느낄 수 있다. 종단의 숙원과제였던 대불사들을 일궈냈던 공심(公心)과 결단력, 종단 화합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누구와도 소통하고 품어냈던 포용력 등 정대 대종사를 수식하는 표현은 많지만, 법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모든 면모의 근간에 금강석과 같은 수행력이 있음을 자연히 알게 된다.

"조사들은 화두를 참구(參究)할 때 정말 사무치도록 맹렬하게 하지요. 지독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남들과 시비하거나 호의호식하는 일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 자체가 없는데 시비에 휘말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구두선(口頭禪)만 익혀서 가불매조(呵佛罵祖)만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기는 잘하지만 정작 공부가 익은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들 흉내를 잘 낸다고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에 대해 왈가왈부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십시오. 알량하게 잘난 척하는 그대를 다 두드려 부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문집에는 정대 대종사의 면면을 알 수 있는 행장과 정대 대종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무산 대종사 · 원택 스님 · 성일 스님 · 박지원 前 국정원장 · 백도웅 목사의 회고글, 대종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 화보들도 담겼다.

법문집 발간을 앞두고 원적에 든 제자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발간사도 가슴을 울린다. 자승 스님은 정대 대종사가 "불교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항상 약자를 향한 자비와 나눔에 솔선했음"을 강조하며 " '왜 포교당이 번듯한 아파트촌에만 있고 달동네에는 없느냐' 며 안일에 빠지려는 후학들을 경책하던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다"고 스승을 그렸다.

이어 "월암당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기 법문집 〈내려놓으면 인생이 유쾌해진다〉 발간으로 대종사의 훈향을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법문집을 통해 출가발심을 되새기고 부처님 제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점검하고 쇄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자 **월암당 정대 대종사**는?

1937년 전북 전주 출생. 1962년 완주 위봉사로 출가해 전강 선사에게 사미계를, 1967년 양산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여주 신륵사 주지를 거쳐 1973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에 임용된 뒤 뛰어난 친화력과 명석한 판단력으로 종무행정 실력을 발휘했다. 이어 재정국장, 규정국장을 거쳐 네 차례의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975년 조계종 제4대 중앙종회의원에 피선된 이래 무려 8선을 연임했으며, 종회부의장을 거쳐 종회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1999년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후 용서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종단운영을 천명하며 1994년 종단개혁, 1998년 종단사태로 얼룩진 조계종의 상흔을 일신하고자 진력했다. 그리고 임기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착공,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완공, 템플스테이 사업 시작,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발족 등 종단 안팎으로 활약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이사장으로 부임해 '불교종합병원(현 동국대일산병원)' 개원, 장학재단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설립 등 불교 건학이념 구현 및 교육불사에 활동하던 중 2003년 11월 18일 주석하던 관악산 삼막사 월암당에서 열반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선(禪) 수행이란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한 연습이에요. 이원론적인 대립과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지요. 시비와 분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 새로운 시각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원적 사유를 거치지 않고 직관적 통찰로 바라볼 뿐, 빨가면 빨갛고 파라면 파란 것이지, 빨갛다고 나쁘다거나 파랗다고 좋다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수행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공부에 좀 진전이 있다고 스스로 '이제 됐다' 며 으스대지는 맙시다. 반드시 명안(明安)의 선지식을 찾아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스승의 조언과 질책을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근 몇 년 사이에 포교당이 그렇게 많이 들 세워졌는데 거기에 리어카 끄는 행상이 안 옵니다. 달동네에서 포교당 하겠다는 스님 못 봤어요. 포교당은 시설 좋은 아파트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포교의 현대화라는 명분이 불교의 귀족화라는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진정한 불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못 먹고 못 입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악행은 아니니까요. 다만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 복 자기가 쓰면 그만입니다. 〈중략〉 재산과 권세로 신도의 가치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의 본령입니다."

"아난에게 찰간을 꺾으라던 가섭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아난은 '내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불교를 가장 많이 안다' 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 때문에 대중과 섞이지 못하고 무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가섭의 말은 '너는 바로 그 자만심 때문에 경전 결집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만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일침입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